

# ‘세계 최강 셔틀콕 여제’ 안세영, 왕중왕전 ‘순항 중’

월드투어 파이널스 4강 확정

시즌 최고 승률 94.2% 기록

미야자키 도모카 2-0 ‘완파’

19일 랭킹 4위 암구치 상대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이 순항 중이다. 안세영은 17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여자단식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세계랭킹 7위)를 2-1(21-16 8-21 21-8)로 제압한데 이어 18일 오전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마저 제압하면서 ‘11개 대회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세영이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조별리그에서 4강 진출을 확정하고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기록함에 따라 11번째 국제대회 석권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18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월드투어 랭킹 9위)를 경기 시작 33분 만에 2-0(21-9 21-6)으로 완파했다.

시즌 15개 대회에 출전한 안세영은 이제까지 총 69경기를 치러 65승을 거두고 승률 94.2%를 기록했다. 이는 60경기 이상 출전한 여자 단식 선수 중 단일 시즌 역대 최고 승률이다.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2-3에서 3연속 득점으로 흐름을 탄 뒤 내리 7점을 쓸어 담으며 기선을 제압했고 21-9로 첫 게임을 이겼다.

2게임은 더 암울적이었다. 안세영은 시작과 동시에 6점을 연속으로 냄새며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했고, 미야자키에게 단 6점을 허용하며 경기를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를 2-1로 꺾은 데 이어 2승을



배드민턴 안세영이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여자단식 조별리그 A조 경기에서 일본의 미야자키 도모카를 2-0으로 제압했다.

한국

먼저 쟁기며 조 1위로 올라섰다.

2위 미야자키 아카네(일본)와 승수는 같지만, 게임 점수 득실에서 32-19로 앞섰다.

월드투어 랭킹 상위 8명이 출전한 이 대회에서 4명씩 A조와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명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

자를 기다린다.

승수가 같을 경우에는 죽구의 골 득실처럼 전체 경기에서의 ‘세트 득실’과 ‘점수 득실’을 차례로 따져 순위를 가리게 된다.

미야자키는 월드투어 랭킹은 9위지만, 한 종목에서 국가 당 최대 두 명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는 규정에 따라 결정한 천위페이(5위)를 대신해 행운의 출전권을 얻었다.

하지만 안세영에게 패배 2연패를 당하고 4위로 밀려나 와르다니와 함께 일찌감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올 시즌 벌써 1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모토 겐토와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우게 된다.

안세영은 19일에 열리는 3차전에서 월드투어 랭킹 4위 암구치를 상대한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프로배구 AI페퍼스가 17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벌쳐진 2025-2026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3 패배를 당했다. 사진제공=KOVO

## AI페퍼스, 기업은행과 봄배구 ‘엇갈린 행보’

기업은행, 6위→4위 도약

‘7연패’ 페퍼스, 6위로 추락

여자 프로배구 3라운드 중반으로 들어선 2025-2026 V리그에서 IBK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17일 열린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을 3-0으로 완파하고 6위에서 4위로 올라서며 봄배구 희망을 키운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에 빠져 5위에서 6위로 추락한 것.

이는 시즌 초반 성적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다.

기업은행은 정규리그 전초전이었던 지난 9월 여수·농협컵(컵대회) 정상에 오르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개막 초반 7연패 부진에 빠져 김호철 전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하는 아픔을 겪었다.

여오현 수석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아 4연승을 이

끌며 최악의 상황은 면했고, 7위에서 꾸준하게 순위를 높여 4위로 상승했다.

기업은행은 시즌 6승 9패(승점 20)를 기록하며 3위 흥국생명(승점 22)에 승점 2차로 접근해 포스트시즌 진출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최정민과 이주아가 지키는 중앙은 다른 팀에 밀리지 않고, ‘최리’(최고 리베로) 임명숙이 받치는 수비가 든든한 게 기업은행의 강점이다.

또 취약 포지션임에도 주전 세터로 나서는 박은서가 안정감 있게 경기를 조율하는 데다 김하경도 교체 투입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의 상황은 좋지 않다.

4년 연속 최하위 신세였던 페퍼저축은행은 개막 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한국도로공사를 3-2로 잡고 기분 좋게 출발하며 1라운드 4승 2패로 선전 했다.

특히 안방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5연승 행진을 벌이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시즌 초반 상승세

원동력은 일본인 베테랑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

루요의 활약이었다.

하지만 상대 팀들의 적응으로 ‘시마무라 효과’가 힘을 잃은 데다 베테랑 박정아와 고에립 등의 부진이 겹쳤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달 21일 경관장 전 1-3 패배를 시작으로 한 달 가까이 7연패 수렁에서 헤덕이며 6위로 내려앉았다.

시즌 6승 9패(승점 17)를 기록, 최하위인 정관장(승점 14)에 승점 3차로 끊기는 신세다.

이 때문에 기대했던 봄배구 가시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팬들이 장소연 감독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페퍼저축은행은 외국인 주포 조이 웨더링턴(동록명 조이)과 중앙을 책임지는 시마무라가 제 몫을 하되 리시브 불안 속에 박정아 등 베테랑들의 부진이 아쉽다.

봄배구 희망을 키우는 기업은행과 최하위 악몽

이 되살아난 페퍼저축은행이 남은 시즌 어떤 행보

## 가족형 동계 스포츠 체험…장애인 ‘화합의 장’

광주시장애인체육회, 2025 장애인 체육가족 스키캠프 개최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가족형 동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간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2025 광주 장애인체육가족 스키캠프’를 갖는다.

이번 스키캠프는 장애인체육 가족이 부모와 함께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며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간 유대감 형성과 지속적인 체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캠프에는 지역 내 5개 구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스키캠프 신규 참가자를 우선 선발했다.

총 13가구 26명의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참여했으며, 운영진과 전문 강사를 포함해 총 40명이 함께한다.

스키캠프는 참가자의 장애 특성과 신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스키 교육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단계적으로 지도하며, 이를 통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도 함께 안전교육과 스キー 체험에 참여해 동계 스포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 장애인체육 가족 스키캠프’를 갖는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스키캠프는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형 체육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가족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동반 체육 캠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기족형 동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19일까지 3일간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2025 광주 장애인체육 가족 스키캠프’를 개최한다.